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만족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최정혜*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만족도 경험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질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J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8곳에서 만3세-만5세 유아 2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범주화된 대주제는 7개로 나타났다. 그 주제는 첫째 부모에 대한 고마움, 둘째 부모와 함께 한 가장 큰 즐거움, 셋째 부모에 대해 속상한 경험, 넷째 부모와 다툼 경험, 다섯째, 부모와 다툼 후 대처방법, 여섯째, 부모에 대한 만족도, 일곱째 부모에 대한 만족/불만족 이유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은 유아들의 연령별,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만족도에 대한 경험은 연령별,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역할과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유아(Young Children), 부모(Parent), 부모역할(Parental role), 부모만족도(Satisfaction for Par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유아의 행복감 증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유아들이 더 배려하는 삶을 살며(Noddings, 2003), 세상을 보다 안전하게 느껴 친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jhchoi7@gnu.ac.kr), 경상대학교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화적이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미래에 대해 훨씬 긍정적이기 때문이다(Hoggard, 2008). 또한 안정된 행복감은 유아기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의 해결 역량을 강화시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고(최선미, 최미숙, 2016; Schindler, 2010; Seligman, 2011), 유아기 행복감은 성인기에 행복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유아의 행복감 증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에서 가족관계가 주는 영향이 가장 크며 특히 부모가 주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김성숙, 2013; 옥경희, 2017; Belsky, 1984; Luster & Okagaki, 1993). 이는 유아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는 그들의 양육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모이며, 부모가 유아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유아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에서 그리고 부모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부모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아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그러한 사랑에서 진정한 행복감을 느낀다(김성숙, 2013).

유아는 이처럼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데,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한명숙, 2013; 정계숙, 차지량, 문지애, 2016; 최정혜, 2016; Abidin, 1992; Bigner & Gerhardt, 2014).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양육에 있어 효능감을 높게 가질수록 유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옥경희, 2017; Bugental, 1992). 정경화(2013)의 연구에서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과 사랑을 받고 생활하는 유아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유아로 자랄 수 있다고 보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또한 유아가 유능한 사회 시민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영향도 중요한데, 유아기에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아래 자라는 사회화를 위한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발달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정미라, 이방실, 박수경, 2013; 조하영, 박성연, 2013; 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박은주, 김영희, 2015; 양진희, 2015; Olson, Lopez-Duran, Lunkenheimer, Chang, Sameroff, 2011). 이런 선행연구 결과들은 모두 부모가 부모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아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유아 쪽에서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 만족도가 과연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박은주, 김영희, 2015; 최정혜, 2015; 옥경희, 2017; 최정혜, 2017), 정작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유아기 자녀에게 부모역할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도 현재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역할과 부모 만족도가 어떠한지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이란 Lamb(1986)의 정의에 토대를 두어, ‘자녀와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자녀의 복지 및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부모의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부모역할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자녀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변인들의 특성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연구들이 부모의 사회적, 심리적 변인에 집중하여 부모역할을 이해하려 시도하였으나, 점차 자녀변인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으로 관심영역이 넓어지는 추세이다(옥경희, 2017).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이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수행과 관련되며(Deater-Deckard, 2006; Lamb & Tamis-LeMonda, 2004), 양육효능감이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최정혜, 2016; Seginer, Vermulst, Gerris, 2002).

부모역할과 밀접한 양육신념은 부모역할 인식, 아동에 대한 관점과 기대, 자녀양육의 목표 및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여, 아동과 부모에 대한 광범위한 신념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됨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은실, 최혜영, 2009; 도현심·송승민·이운경·김민정·신나나·김태우, 2016; Bugental, 1992; Cohen, 2004). 부모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밀접한 연관성은 선행연구들(이재림, 김지애, 이윤주, 진윤아, 2012; Abidin, 1985; Crinc, Gaze, & Hoffman, 2005)을 통해 입증되었으나,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은 양육신념 외에도 아동의 특성, 부모의 성격, 양육지식의 정도, 부모의 경제적, 직업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최선미·최미숙, 2016; Crnic & Low, 2002; Hill & Rose, 2009). 그 외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의 부담 및 스트레스의 정도는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도 연관된다(Kazdin & Whitley, 2003).

부모로서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 행복감, 우울감 등은 부모됨 경험의 정서적 측면에 속한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정서는 자녀관계의 특성과 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도현심 외 5인, 2016; Nodding, 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상빈·전귀연·배문조(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은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수행이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 역할수행은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지도역할과 공정한 형제관계유지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등의 영역에서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한

정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유아기 자녀에게 부모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과 함께 부모역할의 결과로 연결되는 부모만족감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모역할에 대해 유아의 입장에서 연구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질적 연구를 통해 기초연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모역할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다. 또한 부모역할 및 부모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구축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유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만족도는 어떠한 대주제로 나타나는가?
- 둘째,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은 연령별, 성별로 어떠한가?
- 셋째,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만족도는 연령별, 성별로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부모역할과 부모만족도에 관한 현상적 관점의 질적 연구이다. 현상적 방법이란 체험한 세계에 대해 겪은 대로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물의 현상과 외양에 대해 연구하며, 그것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신경림·조명옥·양진향, 2004), 이러한 연구는 참여자들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본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범주화된 주제와 분석 결과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들의 비평을 바탕으로 주관적 해석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였다.

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상남도의 J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8곳에 재원중인 만3세에서 만5세까지의 원아 24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 표1과 같다. 참여 유아들의 연령은 만3세 8명, 만4세 8명, 만5세 8명으로 총 24명이며,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50%씩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심층면접 훈련을 받은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들이 만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유아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자료의 효율성을 위해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여 질문을 통해 40분 정도의 개별 심층 상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어린이집 원장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연구자가 녹취내용을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24)

이름	나이	성별	이름	나이	성별
참여자 1	3세	여	참여자 13	4세	남
참여자 2	3세	여	참여자 14	4세	남
참여자 3	3세	여	참여자 15	4세	남
참여자 4	3세	여	참여자 16	4세	남
참여자 5	3세	남	참여자 17	5세	여
참여자 6	3세	남	참여자 18	5세	여
참여자 7	3세	남	참여자 19	5세	여
참여자 8	3세	남	참여자 20	5세	여
참여자 9	4세	여	참여자 21	5세	남
참여자 10	4세	여	참여자 22	5세	남
참여자 11	4세	여	참여자 23	5세	남
참여자 12	4세	여	참여자 24	5세	남

3. 자료 분석 및 평가 방법

본 연구는 현상적 연구방법 중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참여자들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와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신경림외, 2004: 251).

<표 2> 현상적 분석방법의 단계

구분	내용
1단계	참여자와 면담한 녹취록을 반복 청취한 후, 참여자가 이야기 한 것을 그대로 전사하였고, 문서화된 자료를 반복하여 주의 깊게 읽었다.
2단계	참여자들이 부모의 역할과 부모만족도 경험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 중 가장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들을 추출하였다.
3단계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들로부터 연구자의 직관과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였다.
4단계	이렇게 구성된 의미들에서 7개의 대주제와 20개 전후의 소주제들을 만들었고, 이러한 주제군 들이 참여자들이 진술한 본래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자료를 재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았다.
5단계	위 분류작업을 토대로 현상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위해 7개의 대주제와 20개 전후의 소주제들의 주제에 따라 의미 있는 말과 문장들을 바탕으로 통합적이며 총체적인 서술을 하였다.
6단계	최종 서술 자료가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부모의 역할과 부모만족도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일부 참여자들에게 서술된 내용을 보여주어, 서술된 내용을 타당화 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을 연령별 및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 <표 4>,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3> 만 3세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 및 부모만족도

범주	대주제	소주제	
		여아(4명)	남아(4명)
부모 역할	1. 부모에 대한 고마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난감을 사준 것 ◎ 머리핀을 사준 것 ◎ 사진을 찍어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 감아주는 것 ◎ 맛있는 간식해 주는 것 ◎ 놀아주는 것
	2. 부모와 함께 한 가장 큰 즐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함께 놀아준 것 ◎ 키즈 카페 놀러간 것 ◎ 함께 사진 찍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동산 간 것 ◎ 터닝메카드 틀어주는 것 ◎ 책 읽어주는 것
	3. 부모에 대해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생만 예뻐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를 못 보게 하는 것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만족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내게 회초리를 드는 것 <input type="checkbox"/> 내게 화를 내는 것	<input type="checkbox"/>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4. 부모와 다툼 경험	<input type="checkbox"/> 장난감을 안사줄 때 <input type="checkbox"/> 엄마 말을 안들었을 때	<input type="checkbox"/> T.V. 만화 본다고 혼낸 것 <input type="checkbox"/> 엄마가 혼내는 것
	5. 다툼후 대처방법	<input type="checkbox"/> 엄마에게 사과하기 <input type="checkbox"/> 무서워서 자버림	<input type="checkbox"/> 엄마 도와주기 <input type="checkbox"/> 엄마에게 사과하기
부모 만족도	6. 부모에 대한 만족감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10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불만족(50점)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백점보다 백배) <input type="checkbox"/> 불만족(60점)
	7. 부모에 대한 만족(불만족) 이유	<input type="checkbox"/> 엄마 아빠가 멋져서 <input type="checkbox"/> 엄마 아빠가 잘해줘서 <input type="checkbox"/> 조금 놀아줘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라 그냥 좋아요 <input type="checkbox"/> TV를 틀어줘서요 <input type="checkbox"/> 약속을 안 지켜서요

<표 4> 만 4세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 및 부모만족도

범주	대 주제	소 주제	
		여아(4명)	남아(4명)
부모 역할	1. 부모에 대한 고마움	<input type="checkbox"/> 나를 키워준 것 <input type="checkbox"/> 나랑 놀아주는 것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	<input type="checkbox"/> 데리고 놀러가는 것 <input type="checkbox"/> 장난감 사주는 것 <input type="checkbox"/> 맛있는 밥을 해 주는 것
	2. 부모와 함께 한 가장 큰 즐거움	<input type="checkbox"/> 놀러가서 함께 논 것 <input type="checkbox"/> 그림활동 함께 한 것 <input type="checkbox"/> 영화 보러 같이 간 것	<input type="checkbox"/> 집에서 함께 놀아준 것 <input type="checkbox"/> 놀이공원 간 것 <input type="checkbox"/> 칭찬하면서 뽀뽀해 준 것
	3. 부모에 대해 속상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엄마가 화 낼 때 <input type="checkbox"/> 엄마 아빠가 내 손바닥 때렸을 때	<input type="checkbox"/> 엄마 아빠가 나랑 안놀아준 것 <input type="checkbox"/> 엄마 아빠가 자꾸 나에게 꾸중한 것 <input type="checkbox"/> 동생을 때려 혼날 때
	4. 부모와 다툼 경험	<input type="checkbox"/> 장난감 정리 안했을 때 <input type="checkbox"/> 동생이랑 싸울 때 <input type="checkbox"/> 미용실 안가려고 고집부릴 때	<input type="checkbox"/> 엄마가 내게 화낼 때 <input type="checkbox"/> 엄마가 내 행동을 막을 때 <input type="checkbox"/> 동생을 때려 혼날 때
	5. 다툼후 대처방법	<input type="checkbox"/> 엄마에게 사과하기 <input type="checkbox"/> 동생에게 사과하고 화해함	<input type="checkbox"/> 엄마에게 먼저 사과하기 <input type="checkbox"/> 화해하고 대답하기
부 모 만족도	6. 부모에 대한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10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만족 (100점)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무한대) <input type="checkbox"/> 만족 (100점)
	7. 부모에 대한 만족 이유	<input type="checkbox"/> 엄마아빠가 좋아서 <input type="checkbox"/> 엄마아빠가 최고라서 <input type="checkbox"/> 나랑 잘 놀아줘서	<input type="checkbox"/>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input type="checkbox"/> 우리 엄마 아빠니까 <input type="checkbox"/>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줘서

<표 5> 만 5세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 및 부모만족도

범주	대주제	소주제	
		여아	남아
부모 역할	1. 부모에 대한 고마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것 ◎ 함께 놀아주는 것 ◎ 키워주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속을 잘 지켜주는 것 ◎ 맛있는 요리를 해 주는 것 ◎ 함께 놀아주는 것
	2. 부모와 함께 한 가장 큰 즐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과 함께 여행간 것 ◎ 장난감 사주시는 것 ◎ 함께 놀러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랑 놀러간 것 ◎ 부모님과 산에 놀러간 것 ◎ 함께 여행간 것
	3. 부모에 대해 속상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러가 주지 않은 것 ◎ 나를 혼낸 것 ◎ 동생 때문에 나를 혼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속을 안 지킬 때 ◎ 누나 때문에 같이 혼날 때 ◎ 이불에서 장난친다고 혼날 때
	4. 부모와 다툰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곳에 데려가 주지 않을 때 ◎ 엄마가 나를 혼낼 때 ◎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말을 안 들어서 혼날 때 ◎ 아빠가 집에 늦게 왔을 때
	5. 다툰 후 대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가 놀이터 데려가기 ◎ 엄마가 먼저 안아주셔서 풀림 ◎ 내 의견을 들어주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부모님께 사과하기 ◎ 아빠가 밤에 와서 나와 놀아 주셨음
부모 만족도	6. 부모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만족(200-1000점) ◎ 만족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만족(900-9000점) ◎ 만족 (100점) ◎ 조금만족(아빠는 90점)
	7. 부모에 대한 만족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것 다 해주셔서 ◎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 항상 잘해주셔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냥 부모님이니까 좋아서 ◎ 잘 놀아주니까 ◎ 아빠는 매일 혼자서 게임만 해서

1) 부모에 대한 고마움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만3세에서 여아는 장난감이나 머리핀 등을 사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으며, 남아는 신체적으로 돌보아주거나 놀아주는 것 등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3세 여아는 부모님이 물건을 사준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반면 남아는 신체적으로 돌보아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아: 어~장난감 사줘서 고마워요.(참여자 1); 엄마가 뽀을 사줘서 고마워요(참여자 2),

남아: 머리 감아주는 거요 고마워요(참여자 5); 엄마는 나랑 같이 책도 읽고 놀아서 고마워요(참여자 8).

만4세에서 여아는 부모가 날 키워준 것, 나랑 놀아주는 것,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것 등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으며, 남아는 수영장이나 놀이동산 등에 데리고 놀러가는 것, 맛있는 밥을 해주는 것 등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4세 여아는 자신을 돌보아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반면 남아는 데리고 놀러가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아: 날 키워준 것 고마워요(참여자 9); 엄마가 나랑 놀아줄 때 고마워요(참여자 10)

남아: 아빠가 수영장 데리고 가줘서 고마웠어요(참여자 13); 아빠는 장난감 사줘서 고맙고요, 엄마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맛있는 밥을 해줘서 고마워요(참여자 15).

만5세에서 여아는 부모가 맛있는 요리를 매일 해주는 것, 키워준 것 등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고, 남아는 부모님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게임을 함께 해주는 것, 자전거나 인라인을 함께 타는 것 등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5세 여아는 부모가 자신을 돌보아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반면 남아는 부모가 약속을 잘 지키거나 운동을 함께 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있음을 보여준다.

여아: 맛있는 요리를 매일매일 해줘요(참여자 17); 키워주셔서 감사해요(참여자 20).

남아: 엄마아빠가 약속을 잘 지켜서 고마워요(참여자 21); 게임을 같이 해줘요. ‘덤블링 몽키’를 하고 놀아요.(참여자 23); 자전거 타고 놀아줘서 좋았어요. 인라인도 같이 타요(참여자 24).

2) 부모와 함께 한 가장 큰 즐거움

유아가 지각한 부모와 함께 한 가장 큰 즐거움은 만3세에서 여아는 집에서 부모와 함께 놀거나 키즈카페 등에 놀러간 것 등이며, 남아는 놀이동산 간 것, 함께 놀이한 것 등이었다. 즉 만3세 여아와 남아 모두 부모와 함께 한 가장 큰 즐거움으로 놀이동산에 가거나 부모와 함께 놀이 활동을 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여아: 어~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노는 거요.(참여자 1, 참여자 4);

엄마랑 키즈 카페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요(참여자 2).

남아: 소풍가는 거요(참여자 5); 엄마아빠랑 놀이동산 가는 거요(참여자 7);

유치원에서 아빠가 내 손등에 앵무새 그려 줬을 때(참여자 8).

만4세에서 여아는 엄마 아빠와 수영장에 놀러간 것, 엄마와 함께 그림그린 것 등이며,

남아는 엄마아빠랑 놀이공원 갔을 때, 장난감 사주었을 때 등이었다. 즉 만4세 여아와 남아 모두 부모와 함께 한 가장 큰 즐거움으로 놀이동산에 놀러가거나 여러 가지 놀이를 부모와 함께 한 것을 언급하였고, 남아는 장난감 사준 것도 큰 즐거움이었음을 보였다.

여아: 엄마아빠랑 코코몽 수영장 갔는데 아빠랑 공놀이도 하고 재밌었어요(참여자 9);

엄마가 미술학원에 왔는데, 나랑 같이 그림 그러서 그때 많이 좋았어요(참여자 10)

남아: 엄마아빠랑 놀이공원 갔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참여자 14); 장난감 사줬을 때 가장 좋았어요(참여자 16).

만5세에서 여아는 가족여행 또는 함께 놀러간 것 등 이며, 남아는 엄마아빠랑 키즈카페에 놀러가거나 함께 즐겁게 논 것 등 이었다. 즉 만5세 여아와 남아 모두 부모와 함께 한 가장 큰 즐거움이 가족여행 등 놀러간 것임을 보여주었다.

여아: 저번에 제주도에 놀러갔는데, 꽃게도 먹고, 바다도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참여자 17); 농장에 부모님이랑 딸기를 따러 갔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참여자 19).

남아: 엄마랑 타요 키즈카페에 갔을 때 너무 즐거웠어요(참여자 21); 부모님이랑 가위 바위보하고 놀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참여자 24).

3) 부모에 대해 속상한 경험

유아가 지각한 부모에 대해 속상한 경험은 만3세에서 여아는 부모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 나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 나에게 화를 내는 것 등 이었으며, 남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TV를 못보게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즉 만3세 여아는 동생에 대한 부모의 편애 때문에, 남아는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속상한 경험이 있음을 보였다.

여아: 엄마가 제 말은 안듣고 라은이(동생)만 예뻐해요.(참여자 1); 엄마가 회초리 드는 거...(참여자 3); 어~화내는 거(참여자 4)

남아: 유치원 갔다 와서 TV. 만화보고 있으면 꺼버린다고 해서 슬퍼요(참여자 7); 엄마랑 아빠가 장난감 다음에 사준다고 해놓고 또 물어보면 다음에 사준다고 이랬다저랬다 해요(참여자 8).

만4세에서 여아는 엄마가 화를 낼 때, 부모님이 내 손바닥을 때렸을 때 등이며, 남아는 엄마아빠가 나랑 안 놀아줄 때, 엄마아빠가 자꾸 나에게 꾸중할 때, 동생을 때렸다고 혼낸 것 등으로 나타났다. 즉 만4세 여아와 남아 모두 부모님께 꾸중 및 체벌을 받을 때 속상한

경험을 가졌으며, 남아는 부모님이 놀아주지 않은 것도 속상한 경험임을 보였다.

여아: 엄마가 성낼 때요. 성내면 무서워요(참여자 9); 엄마랑 아빠가 화낼 때요. 그리고 손바닥 때릴 때요(참여자 10).

남아: 엄마랑 아빠가 규환이랑 안 놀아줄 때요. 규환이가 놀아달라고 했는데 안놀아줬어요(참여자 13); 엄마랑 아빠가 자꾸 저한테 꾸중해요. 자꾸 꾸중하니깐 서운해요(참여자 14). 제가 동생을 때려서 혼났을 때(참여자 15).

만5세에서 여아는 엄마아빠가 함께 놀러가 주지 않을 때, 나를 혼낼 때, 동생 때문에 나를 혼낼 때 등이었으며, 남아는 엄마아빠가 약속을 안 지킬 때, 누나 때문에 같이 혼날 때, 이불에서 장난친다고 혼날 때 등으로 나타났다. 즉 만5세 여아와 남아는 공통적으로 부모에게 혼날 때 속상한 경험을 가졌으며, 그 외 여아는 동생 때문에 혼날 때, 남아는 부모가 약속을 안 지킬 때, 장난친다고 혼날 때 속상한 경험을 가졌음을 보였다.

여아: 플레이 팡팡에 놀러가자고 했는데, 엄마가 수학학습지 공부해야한다고 안된다고 해서 속상했어요(참여자 17); 엄마가 제가 말을 잘 안들어서 혼났어요(참여자 18); 동생이랑 싸워서 혼난거요(참여자 19)

남아: 엄마아빠가 약속을 안지킬 때 속상해요(참여자 22); 누나가 잘못했는데 같이 혼났어요. 근데 제가 잘못해서 혼날때도 있는데 누나가 잘못해도 같이 혼나요(참여자 23); 얼마 전 이불에서 붕붕카를 타서 혼났어요. 붕붕카를 엄마가 밖에 가져가서 제가 다시 들고 왔어요(참여자 24).

4) 부모와 다툼 경험

유아가 지각한 부모와 다툼 경험은 만3세에서 여아는 장난감을 안사줄 때, 엄마 말을 안들었을 때 등으로 나타났으며, 남아는 TV 보는 것 꾸중할 때와 형이랑 싸울 때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혼낼 때 등으로 나타났다. 즉 만3세 여아는 장난감 안사줄때와 부모 말을 안들었을 때, 남아는 TV 볼 때, 형제끼리 다툼 때 부모에게 꾸중으로 부모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 네. 엄마가 장난감을 안사줘서요(참여자1); 어~이빨 닦았는데 케이크 먹어서 엄마한테 혼났어요(참여자 4).

남아: 엄마가 저녁준비하는 동안 TV보고 있으라고 해서 보는데 TV만화 많이 본다고 매일 혼내(참여자 7); 유치원 데려다 줄 때 형이랑 매일 싸워서 혼나(참여자 8).

만4세에서 여아는 장난감을 정리 안할 때, 동생이랑 싸울 때 등이며, 남아는 엄마가 내

게 화낼 때, 엄마가 내 행동을 못하게 할 때 등으로 나타났다. 즉 만4세 여아와 남아 모두 부모가 화를 낼 때 부모와 다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는 동생에 대한 편에 때문에, 남아는 자기행동에 제재를 할 때 부모와 다툼이 있음을 보였다.

여아: 어저께요. 장난감 정리 안해서 엄마가 성냈어요(참여자 9); 동생이랑 싸웠는데요, 엄마가 나한테만 꾸중해서 기분 나빴어요(참여자 10)

남아: 엄마가 '저쪽에서 놀아'라고 화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참여자 13); 내가 과자 조금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화냈어요. 아빠도 엄마 편 들었어요(참여자 14).

만5세에서 여아는 부모가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가 주지 않을 때, 엄마가 나를 혼낼 때 등이며, 남아는 부모님의 말을 안 들을 때, 아빠가 집에 늦게 왔을 때 등으로 나타났다. 즉 만5세 여아와 남아 모두 부모님에게 혼날 때 부모와 다투었으며, 남아는 아빠의 귀가가 늦을 때 다투는 경우가 있음을 보였다.

여아: 엄마가 플레이 광장에 안테리고 가서 속상했어요(참여자 17); 엄마한테 혼나고 울었어요(참여자 18); 엄마가 몰래 할머니랑 통화하고 나는 안시켜주어서 속상해서 화냈어요(참여자 19).

남아: 부모님 말을 안들어서 혼났을 때(참여자 21); 아빠가 집에 빨리 안와서 아빠에게 화냈어요(참여자 24)

5) 부모님과 다툰 후 대처방법

유아가 부모와 다툰 후 대처방법을 보면 만3세에서 여아는 동생이랑 잘 지내겠다고 말한다, 부모님이 무서워서 자버린다 등으로 응답했으며, 남아는 TV 보는 대신 요리활동에 참여하기, 형이랑 다투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사과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즉 만3세 여아와 남아 모두 부모님과 다툰 후 부모에게 사과하는 대처방법을 보였다.

여아: 라은이랑(동생) 잘 지낼거예요. 이렇게 했어요(참여자 1);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자요(참여자 2).

남아: TV대신 요리활동에 참여해서 그릇을 날랐다(참여자 7); 형이랑 차안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사과를 해서 괜찮아졌어요(참여자 8).

만4세에서 여아는 엄마에게 사과하기, 동생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기 등이며, 남아는 엄

마에게 먼저 사과하기, 화해하고 대답하기, 말 잘 듣기 등으로 나타났다. 즉 만4세 여아와 남아 모두 부모와 다툰 후 대처방법으로 부모에게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을 보였다.

여아: 장난감 정리했어요. ‘어마 아빠 미안해요’ 하고 사과도 했어요(참여자 9); 동생한테 ‘미안해’ 하고 안아줬어요.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어요(참여자 10).

남아: 엄마한테 사과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해서 나도 ‘미안해’ 했어요(참여자 13); ‘엄마, 미안해 과자 안 먹을게’ 하고 했어요. 내가 먼저 사과했어요(참여자 14); 엄마가 물어보는 거 크게 대답했어요(참여자 15); 말 잘 들을 거예요(참여자 16).

만5세에서 여아는 엄마가 먼저 안아주셔서 풀림 등으로 나타났으며, 남아는 자신이 먼저 부모님께 사과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즉 만5세 여아는 어머니가 먼저 화해해줘서 풀렸고 남아는 자신이 먼저 부모에게 사과해서 화해하는 대처방법을 보였다.

여아: 엄마가 놀이터 데려가셔서 같이 재밌게 놀았어요(참여자 17); 엄마가 먼저 안아 주셨어요(참여자 18). 할머니랑 통화 안시켜주어서 속상했는데 나중에 통화시켜 주었어요(참여자 19).

남아: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하니까 ‘괜찮아’라고 했어요(참여자 21); 아빠가 밤에 와서 같이 놀아주어서 화가 풀렸어요(참여자 24).

2.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 만족도

1) 부모에 대한 만족도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만3세에서 여아는 매우만족과 불만족 등으로 나타났으며, 남아도 매우만족과 불만족 등으로 나타났다. 즉 만3세 여아와 남아 모두 대부분 부모에게 만족하고 있지만 불만족도 있음을 보였다.

여아: 100점만큼 좋아요(참여자 1, 2); 50점이예요(참여자 3); 100점보다 아주 좋아요(참여자 4).

남아: 엄청 좋아요(참여자 5, 참여자7); 100점보다 100배로 좋아요(참여자 6); 60점이예요(참여자 8).

만4세에서 여아는 매우 만족과 만족으로 나타났으며 남아도 매우 만족과 만족으로 나타났다. 즉 만4세 여아와 남아 모두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보였다.

여아: 100점이에요(참여자 9, 참여자 12); 110점이에요(참여자 10, 참여자 11).

남아: 무한대요(참여자 13); 100점이에요(참여자 14, 참여자15, 참여자 16).

만5세에서 여아의 경우 매우 만족, 만족으로 나타났으며, 남아는 매우만족, 만족, 조금 만족 등으로 나타났다.

여아: 200점이에요(참여자 17), 1000만점이에요(참여자 18); 100점이에요(참여자 19, 참여자 20).

남아: 엄마는 900점이구요, 아빠는 90점이에요(참여자 21); 100점이에요(참여자 22, 참여자 24); 9000점, 1000만점 줄래요(참여자 23)

2) 부모에 대한 만족/불만족 이유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만족 이유는 만3세에서 여아는 엄마는 예쁘고 아빠는 멋져서, 엄마 아빠가 잘해줘서 등이며 불만족 이유는 엄마가 아빠를 버린다고 해서요 등으로 나타났다. 남아는 부모라 그냥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줘서요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이유는 엄마랑 아빠가 매일 약속을 안지키기 때문이에요 등으로 나타났다. 즉 만3세 여아, 남아 모두 엄마 아빠에 대해 매우 만족하지만 만3세 남아의 경우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있음을 보였다.

여아: 엄마가 정말 정말 예쁘고 아빠는 멋져서요(참여자 1); 엄마 아빠가 100점만큼 해주고 예뻐요(참여자 2); 엄마가 아빠를 버린다고 해서 점수를 뺐어요(참여자 3); 나랑 잘 놀아주니까(참여자 4)

남아: 그냥 좋아요. 그냥 엄마, 아빠라서 좋아요(참여자 5); 이걸 좀 비밀이에요. (킷속 말로) TV를 틀어줘서요(참여자 6); 내가 하고 싶은 거 다해줘요(참여자 7); 엄마랑 아빠랑 맨날 약속을 안지키기 때문이에요(참여자 8).

만4세에서 여아는 엄마 아빠가 좋아서, 엄마 아빠가 최고라서 등이며, 남아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니까, 놀이동산을 데리고 가줘서 등으로 나타났다. 즉 만4세 여아, 남아 모두 엄마아빠를 사랑하니까 만족한다고 하였다.

여아: 엄마, 아빠가 좋아서요(참여자 9, 참여자 10); 엄마 아빠가 최고라서요(참여자 11);

엄마는 예쁘고 아빠는 멋져서요(참여자 12).

남아: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요(참여자 13); 우리 엄마 아빠니까요(참여자 14); 아빠 엄마를 좋아해서요(참여자 15); 엄마 아빠가 놀이동산 데리고 가줘서요(참여자 16).

만5세에서 여아는 원하는 것 다 해주셔서,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등으로 나타난 반면, 남아는 그냥 부모님이니까 좋아서, 잘 놀아주니까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아는 아빠에게 조금 만족한 이유가 ‘아빠는 매일 혼자서 게임만 해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부모에 대한 만족이유가 5세 여아와 남아가 공통으로 부모님이니까 좋아서였고 그 외 차이는 점은 여아는 원하는 것을 다 해 주어서인 반면 남아는 잘 놀아주니까 등으로 나타났다.

여아: 제가 사달라는 건 다 사주니까요(참여자 17); 부모님이 너무 좋아요(참여자 18); 항상 잘해주시니까요(참여자 19); 부모님이 좋아서요(참여자 20).

남아: 엄마는 잘 놀아주는데 아빠는 맨날 게임만 해요(참여자 21); 그냥 부모님이니까 다 좋아요(참여자 22); 부모님이 좋아서요(참여자 23); 잘 놀아주니까요(참여자 24).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만족도에 대한 경험을 현상학적 관점의 질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Colaizzi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범주화된 대주제는 7개로 나타났다. 그 대주제는 (1) 부모에 대한 고마움, (2) 부모와 함께 한 가장 큰 즐거움, (3) 부모에 대해 속상한 경험, (4) 부모와 다툰 경험, (5) 부모와 다툰 후 대처방법, (6) 부모에 대한 만족도, (7) 부모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이유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에 있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만3세에서 여아는 장난감이나 머리핀 등 물건을 사준 것에, 남아는 신체적으로 돌보아주거나 놀아주는 것에 고마워하였다. 즉 만3세 남녀 유아 간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은 차이를 보였다. 만4세에서 여아는 함께 놀아주는 것,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것 등 일에 대해, 남아는 놀이동산 등에 데리고 놀러가는 것, 맛있는 밥을 해주는 것 등에 고마움을 표해 만4세 남녀 유아는 부모님이 함께 놀러가는 것에 공통적으로 고마워하였다. 그리고 여아는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보호에, 남아는 맛있는 밥을 해주는 양육에 고마움을 느꼈다. 만5세에서 여아는 맛있는 요리를 매일 해주는 것에 고마워하는 반면 남아는 부모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 고마워해서 남녀 유아 간에 차이를 보였다.

본 결과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만3세에서 만5세로 연령이 높아갈수록 신체적 돌봄에

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등의 가치관과 관련된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변해 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옥경희(2017)의 연구에서 부모 역할과 관련된 연구로서 자녀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영역이 넓혀질 필요가 있다는 것과 일치하는 맥락으로 보이며, 자녀의 연령별, 성별에 따라 부모역할을 어떻게 인지하는 지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와 함께 한 가장 큰 즐거움은 만3세에서 여아는 집에서 부모와 함께 놀거나 키즈카페 등에 놀러간 것을, 남아는 놀이동산 가는 것이나 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여아와 남아 모두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만4세에서 여아는 엄마 아빠와 수영장이나 동물원 등에 함께 놀러간 것, 엄마와 함께 그림그린 것 등 입에 비해, 남아는 놀이공원 갔을 때, 엄마아빠가 함께 놀아줄 때, 장난감 사주었을 때 등을 들었다. 만5세에서 여아는 함께 놀러가거나 가족여행가서 즐긴 것, 장난감 사준 것 등을 들었으며, 남아는 엄마아빠랑 산에 놀러가거나 함께 가족여행 간 것 등을 들었다.

본 결과는 부모와 함께 한 가장 큰 즐거움에 대하여 만3세에서 5세로 연령이 높아갈수록 단순히 부모와 함께 노는 것에서 수영장에 놀러가기, 가족여행 가기 등으로 놀이의 장소가 다양하게 변해 감을 보여준다. 또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들은 부모와 함께 하는 공간에서, 그리고 함께 하는 시간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통해 행복을 경험한다는 김성숙(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맥락이다.

넷째, 유아가 지각한 부모에 대해 속상한 경험은 만3세에서 여아는 동생만 예뻐하는 것, 나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 등 이었으며, 남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TV를 못보게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만4세에서 여아는 엄마가 화를 낼 때, 부모님이 내 손바닥을 때렸을 때 등이었으며, 남아는 엄마아빠가 나랑 안 놀아준 것, 엄마아빠가 자꾸 나에게 꾸중한 것 등 이었다. 만5세에서 여아는 엄마아빠가 함께 놀러가 주지 않은 것, 나를 혼낸 것 등이었으며, 만5세 남아는 엄마아빠가 약속을 안 지킬 때, 누나 때문에 같이 혼날 때 등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부모에 대한 속상한 경험으로 만3세에서 5세로 연령이 높아갈수록 단순히 동생을 편애하는 것 등에서 나를 때리거나 혼내는 것,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등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로 보았을 때 여아는 부모가 동생만 편애하는 것, 남아는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이 속상한 경험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선행연구(조하영, 박성연, 2013; 옥경희, 2017; Bugental, 1992)과 관련해 볼 때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유아가 지각한 부모와 다툰 경험은 만3세에서 여아는 장난감을 안 사줄 때, 엄마 말을 안 들었을 때 등이며, 남아는 TV 본다고 꾸중할 때와 형이랑 싸울 때 등으로 나

타났다. 만4세에서 여아는 장난감을 정리 안 해서, 동생이랑 싸울 때 등이며, 남아는 엄마가 내 행동을 막을 때, 동생을 때렸다고 혼낼 때 등으로 나타났다. 만5세에서 여아는 부모가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가 주지 않을 때, 엄마가 나를 혼낼 때 등으로 나타났으며, 남아는 부모님의 말을 안 들을 때 등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유아가 지각한 부모와 다툰 경험에서 만3세에서 5세로 연령이 높아갈수록 단순히 엄마 말을 안들을 때에서 장난감 정리를 안 해서 또는 원하는 곳에 데려가 주지 않을 때 등으로 나타나서 연령에 따라 부모와 다투는 이유가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와 다투는 경험을 성별로 보았을 때, 여아들은 동생과 싸우거나 엄마 말을 안 들어 혼날 때 인 반면 남아들은 부모 말을 안 듣고 TV를 보거나 동생과 싸울 때 등으로 나타나 '동생과의 싸움'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유아기에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의 해결 역량을 강화시킬 때 유아기를 성공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최선미, 최미숙, 2016; Schindler, 2010; Seligman, 2011)를 지지하는 맥락으로 보이며, 이런 측면에서의 부모역할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유아가 부모와 다툰 후 대처방법을 보면 만3세에서 여아는 동생이랑 잘 지내겠다고 말한다, 부모님이 무서워서 자버린다 등이며, 남아는 형과 다투지 않겠다고 사과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만4세에서 여아는 엄마에게 사과하기, 동생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기 등이며, 남아는 엄마에게 먼저 사과하기, 말 잘 듣기 등으로 나타났다. 만5세에서 여아는 먼저 부모님께 사과하기 등이며, 남아도 먼저 부모님께 사과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부모와 다툰 후 대처방법에서 만3세에서 5세로 연령이 높아갈수록 단순한 회피전략에서 엄마나 동생에게 사과하기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남녀 유아 모두 부모에게 먼저 사과하는 대처방법으로 나타나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이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역할수행과 관련되므로 (Deater-Deckard, 2006; Lamb & Tamis-LeMonda, 2004) 자녀의 훈육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와의 화해방법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만3세의 여아와 남아 모두 매우만족에서 불만족 까지 보이고 있었다. 만4세의 여아와 남아는 매우 만족과 만족으로 나타났으며, 만5세 여아는 매우 만족, 만족으로 나타난 반면 만5세 남아는 매우만족, 만족, 조금 만족 등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서 유아기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만3세에서 5세로 연령이 높아갈수록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 남녀 유아 모두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행복감 증진에 부모가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선행연구(김성숙, 2013; 옥경희, 2017; Belsky, 1984; Luster & Okagaki, 1993)와 관련해 볼 때 바람직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만3세에서 2명의 유아들이 부모만족도를 낮게

표현한 것은 향후 부모역할과 관련하여 유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어떤 면인지 연구 할 필요가 있겠다.

여덟째,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의 이유는 만3세에서 여아는 엄마 아빠가 잘해줘서 만족하고 있고, 불만족 이유는 나랑 조금 놀아줘서 등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부모 만족 이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해 주어서이고, 불만족 이유는 엄마랑 아빠가 맨 날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등으로 나타났다. 만4세에서 여아는 엄마 아빠가 좋아서이며, 남아의 경우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놀이동산을 데리고 가줘서 등으로 나타났다. 만5세에서 여아가 부모에게 만족하는 이유는 원하는 것 다해주어서 등으로 나타난 반면, 남아는 그냥 부모님이니까 좋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아의 경우 아빠에게 조금 만족한 이유로서 아빠가 매일 혼자서 게임만해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본 결과에서 유아가 부모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만3세에서 5세로 연령이 높아 갈수록 부모가 잘해주어서 라는 이유에서 그냥 부모니까 좋아서 라는 응답으로 변해갔다. 즉 연령이 높아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체를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여아는 부모님이 잘해주거나, 또는 원하는 것을 해주어서이고, 남아는 놀이동산을 데리고 가거나 그냥 부모님이니까 등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금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이 양육신념 외에도 부모의 경제적, 직업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이재립, 김지에, 이윤주, 진윤아, 2012; Abidin, 1985; Crinc, Gaze, & Hoffman, 2005)와 관련하여 부모의 경제적 요인이 유아들의 부모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아직 어린 유아들이긴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때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짐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되어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상에서 나타난 본 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부모역할 경험은 유아들의 연령별,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즉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연령이 높아갈수록 단순한 돌봄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등의 가치와 관련된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 함께 한 가장 큰 즐거움’에 대해서도 연령이 높아갈수록 단순히 부모와 노는 것에서부터 가족여행 가기 등 놀이의 장소가 다양하게 변화함을 보여주었으며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에 대한 속상한 경험’으로는 연령이 높아갈수록 동생을 편애하는 것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등 다양한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 다툰 경험’은 연령이 높아갈수록 다투는 이유가 다양해졌으며, 성별로는 동생과의 다툼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다툰 후 대처방법’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먼저 사과하는 전략으로 나아갔으며, 성별 차이는 없었다.

둘째, 유아가 지각하는 부모만족도에 대한 경험은 연령별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차이는 없었다. 즉 ‘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높아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는 연령별, 성별에 따라 부분적 차이가 있었다. 즉 유아들의 부모에 대한 만족 이유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가 잘해주어서라는 단순 이유에서부터 그냥 부모니까 좋아서 라는 응답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여아는 부모님이 잘해주거나 원하는 것을 해주어서이고 남아는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거나 그냥 부모님이니까 라는 응답을 보여 부분적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유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만족도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이나 양육태도를 살펴본 연구와 달리 유아가 부모들이 하고 있는 부모역할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므로 향후 부모역할 관련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는 유아들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다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반 구조화된 유아용 인터뷰 설문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라는 관점에서 24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위해 앞으로는 지역별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역할에 대한 확장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 동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1), 333-350.
- 김성숙 (2013).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의 의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3), 377-400.
- 도현심, 송승민, 이운경, 김민정, 신나나, 김태우 (2016). 학령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됨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7, No. 3, 147-166.
- 박상빈, 전귀연, 배문조 (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 기대와 역할수행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5), 85-105.
- 박은주, 김영희 (2015).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역할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4), 139-164.
- 옥경희(2017). 유아기 자녀 가족의 가족체계 기능과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2), 99-117.
- 양진희(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

육학논집, 19(5), 419-447.

이은실, 최혜영(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양육참여도 및 배우자의 지지. *대한가정학회지* 47(5), 13-22.

이재림, 김지애, 이윤주, 진윤아 (2012).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의 발달특성의 관련성 메타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151-173.

정계숙, 차지량, 문지애 (2016). 취원 유아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 참 역량과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의 영향: 직업유무별 비교.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7, No. 6, 95-106.

정경화 (2013). 어머니 대모애착 및 양육효능감과 영아와 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애착 및 기질과의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미라, 이방실, 박수경(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 변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7(2), 449-469.

조하영, 박성연 (2013). 아버지의 양육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3), 59-74.

최선미, 최미숙 (2016). 유아행복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20(4), 315-336.

최정혜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1), 421-433.

최정혜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모역할 및 부모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코칭연구*, 10(1), 45-65.

한명숙 (2013). 유아의 배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가족건강성, 모자상호작용, 가정환경자극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bidin, R. P.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Belsky, J. (1984). The Determinate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Bigner, J. J., & Gerhardt, C. (2014).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J.: Pearson.

Bugental, D. B. (1992).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within threat-oriented family systems.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 Lisi, & J. J.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2nd ed., pp.219-2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 Cohen, E. (2004). Parental belief systems and difficulties in parenting: Using the parental awareness scheme as a therapeutic guide, *Journal of Infant, Child, and Adolescent Psychotherapy*, 3(2), 252-269.
- Crni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17-132.
- Crnic, K. A.,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pp.243-26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Deater-Deckard, K.(2006).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 Hill, C. & Rose, J. (2009). Parnting stress in mothers of adult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Parental cognitions in relation to child characteristics and family support.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3(12), 969-980.
- Hoggard, L. (2008). 행복: 영국 BBC다큐멘터리[How To Be Happy]. (이정아 역). 서울: 예담
- Kazdin, A. E., Whitley, M. K. (2003). Treatment of parental stress to enhance therapeutic change among children referred for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3), 504-515.
- Lamb, M. E. (1986). The changing of fathers. In M. Lamb(Ed.).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pp. 3-28). New York: Wiley.
-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s*, Hillsdale: Lawrence Elbrum.
- Noddings, N. (2003). *Happiness and Educa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son, S. L., Lopez-Duran, N., Lunkenheimer, E. S., Chang, H., & Sameroff, A. J. (201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early peer aggression: Integrating contributions of self-regulation, theory of mind, and parent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3(1), 253-266.
- Schindler, H. S. (2010). The importance of parenting and financial contribution in promoting fathers'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318-332.

중등교육연구 제29집 (2017년), pp. 119-141.

Seginer, R. Vermulst, A., & Gerris, J. (2002). Bringing up adolescent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child-rearing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5), 410-422.

Seligman, M. E. P. (2011).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Authentic happiness]. (김인자 역). 경기: 물푸레.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Parental Role and Satisfaction of Parents in young Children' Perception

Choi, Jeong-Hye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parental role and satisfaction of parents in young children' perception. For this research, I analyzed the data after in-depth interviewing the 24 young children whose ages are in the ranges between 5 to 3 years. All of them are attending the child-care centers in JinJu-city.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x major themes can be categorized by the qualitative methods as follows. (1) Acknowledgement of the young children to their parents, (2) Recognizing great-joy of the young children with their parents, (3) Experiencing the stressful happening with their parents, (4) Quarreling with their parents, (5) Strategy of the young children how to cope with their parents after quarreling, (6)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the young children to their parents, (7) The reason of satisfied and unsatisfied of the young children to their parents. Second, the difference of children' perception on their parental role was partly attributable to their age and distinction of sex. Third, according to the age and gender of the children, there was a partial difference for the satisfaction of their par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highly useful data to develop the training programs for their parents in the infant-education institution.

논문 투고일: 2017. 11. 20

심사 완료일: 2017. 12. 08

게재 결정일: 2017. 12. 10

